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길이고 돌아가는 길도 길입니다.
길을 걷다 가끔 돌아가게 될 때도 너무 아파하거나 미련에 울지는 마세요.
사실 우리 인생의 길이란 본디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앞으로 멀리 나아갈수록 돌아가기 더욱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5일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대 내외 귀빈과 교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북부권역에서 최초로 운영하게 되는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지난 7월 경기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선정되고 이번에 개소하게 됨에 따라 경기북부 및 일대 수도권의 난임부부 및 임신부, 양육모 및 그 배우자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난임 부부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동국대학교병원이 경기북부권역 보건 의료 질 향상으로 지역사회 거점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 말했다.

김희선 센터장은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로 경기북부분만 아니라 은평구, 강서구, 인천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산, 파주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셔틀버스 운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불교 병원의 특성을 살린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환자경험평가 ‘Cheer Up 캠페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 21일 병원 경영진들이 직접 병동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응원하는 환자경험평가 ‘Cheer Up 캠페인’을 진행했다.

‘Cheer Up 캠페인’은 입원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근무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병동 간호사와 전공의를 응원하기 위해 재미와 당점의 행운을 담은 룰렛 돌림판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였으며 자체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범선 병원장은 “환자경험평가를 연초부터 준비하여 11월 평가기간까지 긴 시간 진행되는 만큼 지쳐있을 직원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끝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추석맞이 돌봄 이벤트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2023년 추석을 맞아 따뜻한 점심 도시락과 송편을 준비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명절 기간 중에는 포토존과 사랑의 우편함을 설치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전하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편배달부를 자처한 사회복지사가 전달했고, 면회 시에는 포토존을 활용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영역의 총체적 치료를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원 생활에서 발생하는 답답함과 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돌봄 이벤트를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